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서 잇단 애도전시

소촌아트팩토리 추모기획전 '기억... 오지 않은 노란 봄날' 예술이뻘그라운드 참여전시 4시 16분 맞춰 퍼포먼스 등

“하늘의 별이 된 찬란한 청춘들의 낮을 달래며, 잊지 않겠습니다.”

미안하고 그리운 계절이 10번째 돌아왔다. 광주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추모전시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복합예술공간 예술이뻘그라운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참여형 특별전시 '4·16'을 오는 27일까지 연다. 애도와 추모의 공간을 만들고자 한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가 한희원, 미디어아티스트이자 설치예술가 이성웅, 도조(陶彫)작가 이형기, 연극배우 이당금(예술이뻘그라운드 대표)이 작가로 참여했다. 관람객들은 추모의 글귀를 적어보고 직접 작은 종이 배를 접어 보면서 전시에 참여한다.

광주 대표 중격작가 한희원은 참사 당해 연도 애도의 마음으로 완성한 '4월의

매화'와 함께 희생자에 보내는 추모시를 선보인다. 흑백의 흘날림이 상실과 비애를 표현하며 영혼들을 위로한다.

이외에도 설치예술가 이성웅이 시민들의 추모글귀를 적은 종이를 모아 세월호를 형상화한 종이배를 완성했다.

도조작가 이형기는 서로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인물군상을 조각해 도조 작품 '우리 다시 만나서...'를 선보인다.

특히 4월 16일 오후 4시 16분에 맞춰 오프닝 행사를 열었다. 이당금 대표가 추념인사에 이어 시낭송, 피아노 연주, 진혼무, 상여소리 등을 펼쳤다.

전시를 기획한 이당금 대표는 “동시대 아픔을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다”며 “매년 마당극, 퍼포먼스 등을 통해 여러 추모행사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전을 마련, 안전과 생명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고 말했다.

한국민족미술협회 광주지회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념특별전 '기억, 그리고 오지 않은 노란 봄날'을 오는 5월 27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열고



복합예술공간 예술이뻘그라운드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4월 16일 오후 4시 16분에 맞춰 특별전 '4·16' 오프닝 행사를 열고 있다.

있다. 전시는 광주 민미협 회원인 김희련, 김화순, 박성완, 박태규, 정진영, 최재덕 등 6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화폭에 세월호 참사를 기록하는 김화

순 작가는 △우재아빠를 그린 '팽목에 살다' △순범엄마를 그린 '광화문에 서다' △세호아빠를 그린 '아버지 삼열씨는 우릴 보고 웃는다' 등 초상화 3점과 함께 애

도의 풍경이 담긴 세월호 대표작을 내걸었다.

광주극장에서 영화간판작업을 하는 이 시대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규 작가는 강렬한 그림체로 다시 한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친다.

이외에도 정진영 작가가 어린 청춘들의 모습 등을 새긴 나무조각 작품, 특유의 거친 질감으로 지난 세월의 시간을 포착하는 박성완 작가가 기록한 세월호 풍경, 김희련 작가의 섬유공예·팽목항 드로잉 등, 이들 작품을 가슴저린 맘으로 감상한다.

은암미술관은 오는 25일까지 2024 세월호 10주기 추모전 '천계天界의 바람이 되어'를 연다. 김봉규, 김병택, 박정웅, 박철우, 정영창 작가 등 5인이 추모의 마음을 화폭에 담았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회화 1점, 설치 1점, 영상 1점, 사진 34점 및 전시연계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위로를 넘어 사회적 공간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대형 참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흙의 미학, 도예가 이종능 개인전

23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지산 이종능 도예가의 개인전 '목포의 예혼-르네상스비트'가 오는 23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7전시실에서 이어진다.

이 도예가는 세계 도자사에서 '토혼' 방식을 발견했다. 토혼(土痕)은 1300도의 장작 불길 속에서 오롯이 흙 본연의 원시성과 질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도예기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자와 토혼방식으로 제작한 달항아리 연작과 벽화작품인 양리 마티스 오마주, 진사, 차도구 등 흙의 미

학을 추구해온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도예가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폭넓은 작품세계가 장의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영국 대영박물관 백자 달항아리 특별전, 뉴욕 한국문화원 '지산의 토혼나들이전', 한국 UAE 수교 40주년 기념 도예전 등을 열었다. 현재 러시아 국립민속 박물관, LH토지박물관, 중국 항주국립茶葉(다엽) 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도선인 기자

풀리처상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광주 공연

내달 25-26일 ACC 예술극장 극장2 ACC재단 공연 브랜드 'ACC 퍼니'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소중함과 희망을 노래하는 뮤지컬을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퍼니' 두 번째 작품으로 화제의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을 오는 5월 25일과 26일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올린다.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은 극작가 겸 작사가 브라이언 요키와 작곡가 톰킵이 1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2008년 오프 브로드웨이에 이어 2009년 토니어워즈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어 주요 3개 부문(음악상, 편곡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에는 뮤지컬로는 이례적으로 풀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하며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뮤지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굿맨 패밀리'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16번째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 다이애나와 그녀의 병이 온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탄탄하고 정교한 드라마로 풀어냈다.

여기에 파워풀하고 중독성 강한 넘버들



ACC재단이 브랜드 공연 'ACC 퍼니'의 두 번째 작품으로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을 오는 5월 25일과 26일 선보인다.

ACC재단 제공

과 강렬한 록을 포함한 재즈, 컨트리, 발라드 등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극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여준다. 3층 철제 구조물과 다채로운 조명이 어우러진 세련되고 아름다운 무대는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와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넥스트 투 노멀' ACC 공연은 서울 공연 이후 처음 진행되는 지방투어로 최정원, 이진영, 마이클 리, 배혜선, 박인

배, 김현진, 김한희, 산들, 최재용, 이서영, 유희승, 흥기범 등 서울 무대에 올랐던 국내 실력파 배우들이 모두 출연해 눈길을 끈다.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은 5월 25일 오후 3시와 7시, 26일 오후 2시와 6시 총 4회 진행된다. 관람료는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4만원이며,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동물 친구들의 국악 놀음 한바탕

20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예술창작집단 소리하나 초청

국립남도국악원은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에 예술창작집단 소리하나를 초청해 아동극 '내가 반장이 된다면'을 오는 20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소리나는 전통문화 예술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2021년도에 창단해 △토끼, 용궁 구출 대작전 △고양이 캠퍼스-아리아리야!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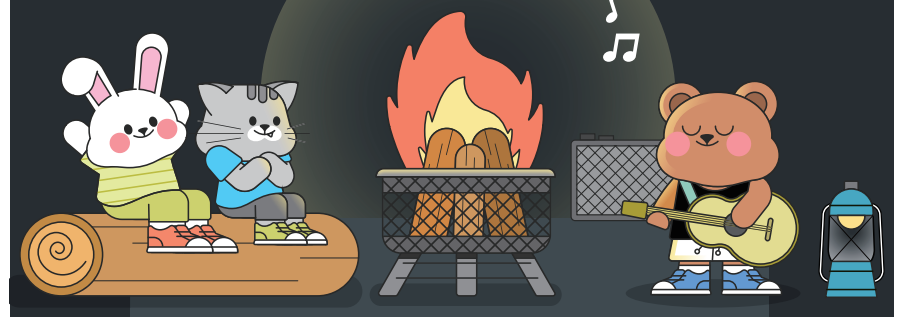
이번 공연 '내가 반장이 된다면'은 진도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관광객들로 더러워진 진도의 모습에 혼자

청소를 하지만 쉽지 않자, 동물 친구들에게 진도를 깨끗하게 지킬 반장을 뽑기로 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슴, 곰, 토끼,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 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저마다의 매력을 뽐낸다. 과연 어떤 동물이 반장이 될 것인지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고군면)를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 등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공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을 참조하거나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박노식 시인, 내달 2~14일 '꽃말시' 시화전 연다

김상연 화가 그림으로 표현

박노식(사진) 시인의 '꽃말시'를 화가 김상연이 그림으로 표현해 낸 특별한 시화전이 열린다.

광주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5월2~14일까지 박노식 시인의 첫 시화집 '기다림은 쓴 약처럼 입술을 깨무는 일'(달아실 刊·2024) 출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전시회 첫날인 5월 2일 오후 6시 오프



닝과 출판기념회를 함께할 예정이다.

박노식 시화집 '기다림은 쓴 약처럼 입술을 깨무는 일'에는 37편의 시가 실렸으며 각 편마다 꽃말을 제목으로 하고 부제로 꽃 이름을 달았다.

각 시편마다 서양화가 김상연이 재해석한 그림이 곁들여져 있어 꽃시와 꽃말, 꽃그림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

화집이다.

김상연 화가는 “기존 시화와는 다른 느낌의 그림, 화가의 눈으로 시를 재해석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며 “시화집에 인쇄된 그림과 원화가 주는 느낌은 색다르다”고 말했다.

박노식 시인은 “꽃마다 꽃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우리의 삶에 투영해 써보고 싶었다”며 “시화집 부제를 '꽃말을 시로 읊은 가슴저린 자화상'으로 적은 것도 그런 까닭”이라고 했다.

도선인 기자